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EBS 특강,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including EBS 특강, 시사기획 창, and various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including 시사기획 창, 시사토크, and various news and entertainment show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9일 (음 7월 3일 辛丑)

36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8년생 반작용 할 수도 있... 37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49년생 신바람 나리라. 61년생 활로가 개척 될 것이다. 73년생 가히 집착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85년생 대타하는 이만 손실을 최소화 하리라. 88년생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양호할 것이다. 50년생 반가운 이로부터 듣는 말이 있겠다. 62년생 넘치려는 것은 반드시 통제하여야만 하느니라. 74년생 전례에 구애 받을 필요는 없다. 39년생 중대사와 연결 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51년생 다중적인 의미로 해석해 불만이다. 63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진력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75년생 여러 사람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만하다. 40년생 진행에 탄력이 붙는 시세이다. 52년생 변동할 여지가 없이 외곽에 놓여 있다. 64년생 집착은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약재가 될 것이나. 76년생 구도가 번복되어 크게 실망할 수도 있는 마당이다. 41년생 주관적 심리를 배제하고 실상에 충실함이 옳다. 53년생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흔들림 없는 뜻을 가져라. 65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문제시할 필요 없다. 77년생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42년생 진중할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좋다. 54년생 선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66년생 뒤돌아 갈 수도 없는 중차대한 갈림길에서 있다. 78년생 입지가 넓어지고 활발해지는 운이니라. 43년생 성패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만이 더 낫다. 55년생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호기심을 알라. 67년생 반박하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로다. 79년생 실존적인 조처들이 지속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44년생 기회는 왔으니 요건을 갖추는데 주력하라. 56년생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중대사가 전개 되리라. 68년생 상대의 반응은 의외로 미약하였다. 80년생 진행 방향은 다르지만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45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 발전의 축을 이룰 것이나. 57년생 틀림없이 저축할 것이다. 69년생 중간 점검은 추진력에 일조한다. 81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46년생 행복의 마당에 들어서실 길목이다. 58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70년생 의도적으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82년생 힘든 맘에 비해 놀라운 효과와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47년생 배배 허러 할수록 실수가 잦은 법이다. 59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 71년생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에 제약을 수 있겠다. 83년생 중차대한 소임을 맡게 되는 대국에 이르렀다.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안방극장 커플 재회 “호흡도 척척”

과거 흥행작 향수 일으켜

“역시 구관이 명관이네요.” 최근 새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재회한 배우들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2년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차진 호흡을 선보이는 데 대한 누리꾼들의 평이다. KBS 2TV ‘조선총잡이’의 이준기·남상미와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의 장혁·장나라, SBS ‘유혹’의 권상우·최지우 등 이들 쌍쌍 배우의 앙상블은 작품을 떠받치는 힘이다. 이들의 강점은 과거 흥행작에서 증명된 연기의 합이다. 여기에도 전작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친숙함과 새롭게 선보이는 화학작용이 더해지면서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막힌 흡입력 커플’ 장혁·장나라=“달팽이란 것들은요, 걸으려는 어수룩해 보이지만은 흡입력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혀요.”(“운명처럼 널 사랑해” 대사) 드라마에서 증권기업 CEO 이 건과 평범한 회사원 김미영으로 각각 분한 장혁과 장나라의 호흡은 시청자들을 붙들어 매는 흡입력을 보여준다. 그들은 과장된 캐릭터에 작정하고 몸을 던진 장혁의 연기를 장나라가 본인 장기인 ‘갸웃하고 착한 캔디’ 연기로 탄탄히 뒷받침하는 데서 나온다. 덕분에 만화에서나 볼 법한 유치하거나 낯뜨거운 장면도 재미있고 설렌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장혁과 장나라는 ‘찰떡궁합’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연인이기도 하다.

농밀한 첫날밤 화면 대신 ‘쿵덕쿵덕’ 떡방아를 찧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담은 애니메이션은 시청자들의 배꼽을 잡게 했다.

드라마는 지난 24일 8회 방송에서 시청률 10.6%(닐스코리아 전국 기준·이하 동일)로 두 자릿수 대에 진입했다. ‘짱짱커플’로 불리며 최고 시청률 42.6%를 찍었던 2002년 SBS ‘명랑소녀 성공기’ 정도의 영광을 재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드라마는 장나라의 극중 별명인 ‘달팽이’처럼 차근차근 순항 중이다.

◇사극에 애절한 로맨스까지-이준기·남상미= 이준기와 남상미는 조선말 개화기를 배경으로 하는 퓨전사극 ‘조선총잡이’에서 정통 연기로 승부수를 던졌다. 두 배우는 사극에 애절한 로맨스까지 크게 흡입을 데 없는 자연스러운 연기의 합을 과시한다.

유독 사극에 강한 이력을 가진 이준기는 능성스럽고 철없는 한량 박운강에서 복수를 위해 냉철한 일본인으로 위장한 총잡이까지 복잡한 감정을 숨어넘어 넘는다. 사실상 이준기 원톱 드라마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사극에 처음 도전한 남상미도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수인 역할을 무리없이 소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배우는 2007년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처음 호흡을 맞춘 MBC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준기는 지난날 19일 제작발표회에서 “다시 만나면 아무래도 편하고 상대와 연기 호흡도 금방 맞출 수 있어서 결과물에 좀 더 빨리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남상미도 “7년 전에는 대하기 어렵고 각자 연기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약간 오누이가 된 기분”이라고 친근감을 나타냈다.

드라마는 두 주인공의 로맨스와 등장인물들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지난주 방송에서 11.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수목극 1위를 기록했다.

tvN ‘꽃보다 청춘’ 세남자의 끈적한 페루 배낭여행

나영석 PD “여행기 피날레는 청춘”

이번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 ‘청춘’이다. 다음달 1일 첫 방송되는 tvN의 해외 배낭여행 프로그램 3탄 ‘꽃보다 청춘’은 배낭여행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인 청춘을 화두로 삼았다.

28일 오후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꽃보다 청춘’ 제작발표회에서 나영석 PD는 “청춘이라는 소재를 쓰지 않으면 ‘꽃보다’ 여행기가 마무리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혔다.

나 PD는 각각 원로배우들과 여배우들의 여행기인 ‘꽃보다 할배 1·2’, ‘꽃보다 누나’에 이어 이번 ‘꽃보다 청춘’ 연출도 맡았다.

“젊은 청춘이 배낭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청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작진이 내린 결론은 청춘이라는 것이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관련된 부분이죠. 신체적 나이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40대 음악인들과 20대 배우들의 여행기 2편으로 구성된 ‘꽃보다 청춘’은 그렇게 탄생했다.

최민식 주연 ‘루시’ 북미 박스오피스 1위



최민식

최민식과 스칼릿 조핸슨이 호흡을 맞춘 ‘루시’가 개봉과 함께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28일 미국 박스오피스 집계사이트인 박스오피스모조닷컴에 따르면 ‘루시’는 지난 25~27일 주말 사흘간 3173개관에서



장나라·장혁, 남상미·이준기

로کہ하며 수목극 1위를 기록했다.

◇‘천국의 계단’ 향수 부르는 최지우·권상우=“10년 뒤 최지우와 ‘천국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싶네요. (최지우에게) 중년 멜로 한번 합시다!”(“유혹” 제작발표회에서 권상우) SBS 새 월화극 ‘유혹’의 주인공 권상우와 최지우는 200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천국의 계단’ 이후 처음 만났다. 드라마는 톱 한류스타 지위를 굳힌 두 배우가 함께 캐스팅된 사실만으로도 방영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아베마리아’ 음악과 뜻깊은 로맨스 연기가 대중의 기억에 여전한 남아 있는 가운데 두 배우가 새롭게 선보이는 농도 짙은 멜로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도 재회 커플’=27일 종영하는 MBC 주말극 ‘호텔킹’의 이종욱과 이다해도 8년 전 SBS ‘마이걸’에서 연인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았다. 두 배우가 호텔 상속녀와 총지배인으로 다시 만난 이 드라마는 주말극 시청률 1위를 계속 지켜왔다. SBS 아침 드라마 ‘정답통 스캔들’에 출연하는 최정윤과 강성민도 2007년 ‘그 여자가 무서워’ 이후 다시 부부부 만났다.

연합뉴스

첫 팀은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에 걸치는 젊은 나이’를 이르는 청춘의 국어사전 뜻풀이와는 거리가 먼 평균 연령 43세의 아저씨들이다. 20년 지기인 유희열과 윤상, 이적은 지구 반대편 페루에서 9박10일간 끈적끈적한 여행기를 만들어 냈다. 천재 작곡가인 유희열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개를 연상케 하는 ‘유희견’(犬)으로, 음유시인 윤상은 소녀 감성에 손이 많이 가는 ‘윤소녀’ 식으로 각각의 캐릭터를 구축했다. 이적은 현지에서만 통하는 미남의 모습을 선보인다. ‘꽃보다 청춘’을 마지막으로 ‘꽃보다’ 배낭여행 시리즈는 이제 막을 내린다.



이적, 유희열, 윤상

9월 4일 국내 개봉 앞뒤

4402만 달러를 벌어들여 ‘히틀러 2014’(2900만 달러)를 제치고 개봉 첫 주 1위에 올랐다. 이밖에 ‘혹성탈출 : 반격의 서막’(1640만 달러) ‘더 퍼지 : 거리의 반란’(989만 달러), 애니메이션 ‘비행기 : 소방구조대’(930만 달러)가 5위 안에 들었다. 워너비 감독이 메가폰을 든 ‘루시’는 평범한 삶을 살던 여자 루시가 어느 날 절대 악 미스터 장에게 납치된 후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루시 역은 스칼릿 조핸슨이, 미스터 장은 최민식이 연기한다. 국내에서는 9월4일 개봉할 예정이며 배 배속 감독이 8월 말 영화 홍보를 위해 내한한다.

연합뉴스